

투데이 칼럼

강 대 강 치닫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강 대 강' 정면 승부를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한편으로 당의 규율을 강조하고 주민 생활경제에도 관심을 보이는 등 민심을 다독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경제리 현실협정에서 현실협 준비가 끝났고, 또 다른 강도도 활성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아직 현실협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경제리 현실협장 건설 활동은 계속 포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7차 현실협의 타관 변수는 무엇일까 궁금하다. 6월 8일부터 사흘간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대남 관계를 대적투쟁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강 대 강 입장을 밝혔다.

이틀 뒤엔 당 비서국 회의를 소집해 규율 준수 등을 내세우며 간부들의 기강을 다잡고 나섰다. 협약한 대미 경제와 코로나19 대응, 불안한 경제 속에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고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강 대 강 정면대결로 가고 대적투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노선은 강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미국이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가더라도 호락호락하진 않다는 것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북한이 추가 현실협을 할 경우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리 현실협장 3번 강도 정비는 모두 끝난 상태다. 여기에 4번 강도 입구 근처에서도 벽체 공사와 관련 자재가 새롭게 포착돼 주목된다.

7차 현실협에 이은 추가 실험이란 분석과 함께, 지난해 큰비로 유실된 도로 복구라는 판단도 나온다. 현실협은 김 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장미철을 앞두고 급변하는 날씨가 변수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북한의 앞선 여섯 차례 현실협은 모두 6월부터 8월을 피해 이뤄졌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치적인 판단이다. 북한이 현실협을 했을 때도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북한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절대

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가을에 열린 당 대회서 집권 연장을 노리는 시간적 주석으로서 현실협 같은 돌발변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장권 주유엔 중국에서는 "중국 역시 북한의 현실협을 또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7차 현실협을 강행할 경우 미국, 일본과 함께 강력한 유엔 제재를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협력해서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핵 위협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한일관계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 외교 장관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한미 양국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그리고 북한이 현실협을 감행

할 경우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은 내부를 추스르는 한편 '강 대 강' 원칙을 재확인하며 현실협을 저울질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 두 나라 공조는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힘으로 압박하며 맞서는 모양새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선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도 있었다. 대미 협상에서 잔뼈가 굵은 최선회를 위무상에, 강경파인 리산권을 대남 총노리는 시간적 주석으로서 현실협을 주관하고 힘으로 압박하며 맞서는 모양새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여성 위무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고위급회담 단장으로 활약했던 리산권은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됐다. 리산권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북구명으로 넘어가냐"는 독설을 했던 대표적인 강경파이다.

최선회와 리산권을 전진 배치한 것은 당장은 대결적 행보를, 중장기적으론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영원 당 비서는 이번 회의에서 노동당 부장 가운데 서열 1위인 조직지도부장을 겸하게 됐다.

사설

전북 학력의 현주소

전북 학력의 현주소를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학력 저하의 원인은 교실교육을 주도하는 교사의 의지와 교육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전북지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됐다.

교단 위축은 학력 저하의 큰 원인이다. 학교교육을 존중하고 교사를 공경하는 풍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학력 향상 여건 조성은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이 아주 절박하다.

학력은 교육의 기본 경쟁력이다. 학력 향상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전북지역의 학력은 전북의 미래 경쟁력이자 좌표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나후 전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북의 인재 양성이 절대로 필요한 과제다.

도민들과 교육 가족들이 모두 제대로 인식해야 할 현안이다.

이는 전라북도의 미래를 생각하고 도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다. 문제는 인성교육이 운운하면서 학력 신장에 허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학력 향상 문제가 자칫 인성이나 인성 교육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다.

학력 신장을 이들에게 맞춰서는 안 된다. 학력을 하향 평등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상황 평등화가 필요하다. 인성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력 저하'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학력 신장 방식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인성 교육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고쳐야 한다.

이는 충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학생의 인성을 제대로 기르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가 인성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전북과 충청 변화와 발전

요즘 전북과 충청의 발전이 비교 분석되고 있다. 충청권은 갈수록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시간이 갈수록 지역 발전은커녕 오히려 낙후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걸핏하면 수도권과의 과밀화를 문제 삼는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각종 기능이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항상 말 뿐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충청 지방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기능의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해안 지역은 서해안 고속국도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대산 석유 화학 단지, 당진 제철소, 서산 자동차 클러스터도 들어섰다. 고속국도를 따라 대학 연구 단지를 비롯하여 오송 생명 과학 단지, 오창 첨단 과학 단지가 중부권

의 새로운 산업 지대로 발돋움하고 있다.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일원과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일원에 지정된 황해 경제자유 구역도 미래가 밝다. 충청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과 고급 인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첨단 과학 기술 연구 단지는 과학 기술 입국을 실현하고 있다. 충청권은 서울에 집중되었던 고급 기능의 분산을 도모하고자 1970년대 초년부터 건설 사업이 추진되었다.

충청 지방은 수도권과 우수한 접근성으로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변했다.

행정 중심 복합 도시와 혁신 도시, 기업 도시 등의 육성으로 신도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상대적으로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 균형 발전에서 전북이 더 이상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충격으로 쓰러진 아베 전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나라에서 선거 유세 중 충격으로 땀바닥에 쓰러져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나라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 중 들러온 총성과 함께 가슴 부위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실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부 퇴진 요구하는 알바니아 시위대



7월(현지시간) 알바니아 티라나의 총리실 앞에 반정부 시위대가 모여 시위하고 있다. 시위대는 알바니아의 부패와 빈곤을 초래한 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